



최형우

잔인한 5월이 가고

반전의 6월이 온다

KIA, 한화 대전 원정 뒤 LG와 홈 3연전 최형우 복귀 ... 브룩스 2경기 선발 등판

T 타이거즈 전망대

화력과 자신감을 키운 '호랑이 군단'이 브룩스를 앞세워 반전의 6월을 연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5월 7승 15패(승률 0.318)를 기록하면서 뒷걸음질 쳤다. 이 중 8패가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기록한 역전패였고, 단 한 점도 내지 못한 영봉패도 2번 있었다. 6연패까지 빠지기도 하는 등 줄부상 속에서 힘겨운 5월을 보냈다.

하지만 KIA는 5월 마지막 주 반전을 위한 판을 깔았다.

도쿄 올림픽 예비엔트리 선수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여파로 5경기만 진행된 지난주, KIA는 3승 2패의 성적을 냈다.

26일 키움전 3-2 역전승을 시작으로 연달아 역전승을 펼치면서 세 경기 연속 1점 차 승리를 거뒀다. 주말에는 2패가 기록됐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한 패배는 아니었다.

29일 1.66의 평균자책점을 자랑하던 KT 데스파이네를 상대로 4회 4득점으로 폭발력을 보여줬고, 쿠에바스를 상대한 30일에도 0-3에서 3-3으로 추격하며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줬다.

나지완, 최형우, 류지혁의 부상 공백에서 '경험'을 얻은 신예 선수들이 자신감도 키웠다.

이정훈을 중심으로 목직해진 타선과 임기영의 이끄는 선발진도 힘이 됐다.

지난 22일 삼성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로 팀의 6연패를 끊었던 임기영은 28일 KT전에서도 6.1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팀 3연승의 발판이 됐다.

맹덴의 부상으로도 다시 선발 기회를 얻은 이민우도 달라진 힘과 안정감으로 6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KIA는 1일부터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 뒤 4일 안방으로 돌아와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망막 이상으로 빠졌던 최형우가 퓨처스리그에서 4경기를 소화하며 엔트리에 재등용된 만큼 '경험'과 '경쟁'이 타선의 새로운 힘이 될 전망이다.

맹덴의 부상 공백은 일단 브룩스로 막는다. 브룩

■KBO중간순위 (3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SSG	45	27	0	18	0.0
2	KT	45	25	0	20	2.0
3	LG	47	26	0	21	2.0
3	삼성	47	26	0	21	2.0
5	NC	46	24	1	21	3.0
5	두산	45	24	0	21	3.0
7	키움	47	24	0	23	4.0
8	KIA	45	19	0	26	8.0
9	한화	46	18	0	28	9.5
10	롯데	45	15	1	29	11.5

스는 1일 한화전, 6일 LG전까지 두 경기를 책임지게 된다.

캠프 때부터 이원화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준비한 만큼 다시 1군에 등록된 김현수와 함께 퓨처스리그에서 차명진, 최준용도 기회를 기다리는 등 선발진은 큰 무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앞선 맞대결에서 얻은 자신감도 긍정적인 요소다. KIA는 지난 4월 27일 안방에서 한화와 시즌 첫 대결을 했다. 4-3, 1점 차 승리를 거둔 KIA는 28일에는 이의리와 박진태, 김현준으로 상대 타선을 봉쇄하며 4-0 영봉승을 만들었다. 29일에는 박찬호의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3-2로 이기며, 첫 만남에서 싸움이 3연승을 거뒀다.

LG와도 잠실과 챔피언스필드에서 두 차례 만나 모두 워닝시리즈를 가져오는 등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4승 2패로 앞서 있다.

좋은 분위기 속 자신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된 KIA의 '아킬레스건'은 불펜이다.

장현식과 정해영이 지난주 1점 차 박병의 승부를 연달아 지키면서 3연승의 주역이 됐다. 하지만 주말 2패를 나눠 가지기도 했다.

장현식과 정해영에게 부담이 집중된 불펜은 '경험'도 약점이다. 그만큼 5월 26일 1군에 가세한 마운드 '만행' 홍상삼에 시선이 쏠린다. 홍상삼이 마운드 안팎에서 후배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하우를 더해줘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관람, 가족·친구 나란히 4명까지 가능

가족·친구와 나란히 프로야구 관람을 할 수 있게 됐다. KBO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의논을 통해 좌석 운영을 최대 4인석까지 확대한다.

이번 좌석 변경 운영은 고척스카이돔을 제외한 실외 경기장에서 적용되며, 현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수에 맞춰 일행 간 4인석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연석 운영과 도입 일정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단의 좌석 매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O는 "연석 운영에 따라 팬들의 안전한 관람 및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각 구단과 더 철저히 방역 지침 준수와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프로야구 구장은 정원에서 최대 30%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2칸씩 좌석을 띄어 앉도록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안방인 챔피언스필드는 전체 2만500석 가운데 26.3%인 5400석을 판매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5월 1무 5패 '최하위'

K리그1 포항전 0-1 아쉬운 패배
K리그2 전남, 김천과 1-1 무승부

광주가 포항 '통곡의 벽'에 또 막혔다.

광주FC는 지난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021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43분 나온 송민규의 헤더에 0-1패를 기록했다.

그동안 19번의 맞대결에서 6무 13패에 그쳤던 광주는 20번째 도전에서 포항전 첫 승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광주의 5월 전적은 1무 5패에 그쳤다.

포항의 두터운 수비에 막혀 어려운 승부를 펼치던 광주는 전반 28분 헤이스의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했지만, 결과는 내지 못했다.

후반 공세 수위를 높인 광주는 후반 8분 엄원상의 스피드로 공략에 나섰다. 한 박자 빠른 패스에 슈팅 기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후반 12분 두현석이 교체해 들어가자마자 각각 선 슈팅을 날리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아쉽게 상대 골키퍼 강현무에 막혔고, 흐른 공을 잡은 김중우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26분에도 두현석과 헤이스가 공격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의 손을 넘지 못했다.

광주는 후반 35분 나온 김중우의 위력적인 왼발 슈팅마저 골대를 맞으면서 땅을 쳤다.

후반 42분 광주가 이희균, 알렉스에 이어 프로 데뷔전에 나선 허을을 동시에 투입하며 마지막 공세를 준비했다.

하지만 교체 선수들이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 상대의 코너킥 공격이 전개됐고, 송민규의 헤더가 나오면서 광주의 골대가 뚫렸다.

후반 추가시간에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추가 실점 위기에 몰렸다.

골키퍼 윤보상이 임상현의 슈팅을 막아낸 뒤 광주의 절박한 공격이 진행됐다. 윤보상까지 포항 진영으로 올라가 공격에 가담했지만 끝내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는 포항전 20경기 연속 무승, 5월 1무 5패를 기록했다.

전남드래곤즈도 골대 불운에 올랐다.

전남은 지난 30일 김천중합운동장에서 K리그2 2021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무려 4개의 공이 골대에 막히면서 승점 1점을 더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반 7분 발로텔리의 슈팅을 시작으로 11분 김현욱의 중거리 슈팅, 21분 장순혁의 헤더가 연달아 골대를 맞고 나왔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프리킥 상황에서 장성재가 올린 공을 박희성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역시 골대로 향했다.

4번이나 골대 불운에 온 전남은 후반 38분 김천 오현규에게 골을 내주면서 패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후반 40분 이종호의 슈팅이 김천 정승현의 손에 맞으면서 전남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사무엘이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대전하나시티즌이 서울이랜드를 1-0으로 꺾으면서 1위로 올라섰고, 전남은 승점 1점 차 2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살아 있네~” ... PGA 시니어대회 3위

챔피언스 투어 진출 최고 성적

최경주(51)가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메이저 대회인 시니어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오를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 컨트리클럽(파70·6968야드)에서 열린 키친에이드 시니어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3언더파 277타를 기록했다.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친 최경주는 지난해 챔피언스 투어 진출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10월 도미니언 에너지 체리티 클래식 공동 6위가 최고 순위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알렉스 체카(독일)가 8언더파 272타로 우승했다.

체카는 이달 초 열린 메이저 대회 리전스 트래디션에 이어 시니어 투어 메이저 2연승을 거뒀다.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는 메이저 대회 5개로 구성되며 이번에 최경주가 3위에 오른 시니어 PGA 챔피언십은 메이저 중에서도 총상금 규모가 US 시니어오픈(총상금 4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특급 대회'로 분류된다.

이번 시니어 PGA 챔피언십 우승 상금은 63만 달러(약 7억원)다.

팀 퍼트로빅(미국)이 4언더파 276타로 단독 2위를 차지했다. 최경주 역시 계속 공동 2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18번 홀(파4) 보기로 준우승에 1타



최경주가 지난 31일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메이저 대회 키친에이드 시니어 PGA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6번홀을 마친 뒤 갤러리들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자랐다.

1970년 12월생인 우승자 체카는 올해 PGA 챔피언십에서 사상 최초의 '50대 메이저 우승자'가 된 필 미켈슨(미국)보다 어리다.

미켈슨은 1970년 6월생이다. PGA 챔피언십

우승자가 같은 해 시니어 PGA 챔피언십 우승자보다 나이가 많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경주는 1970년 5월생으로 미켈슨보다 한 달 '형'이다.

/연합뉴스